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할 추모곡은 없다

정부 공식 추모곡 제작 계획에 민주당·5월 단체 반발

“보고싶은 것만 보는 이중잣대” 온·오프라인 비난

“이 노래보다 더 어울리는 추모곡은 세상에 없다.”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신할 공식 추모곡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책정, 공모를 추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오프라인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확산하고 있다.

당장, 민주통합당은 논평을 내고 추모곡 제작 중단을 촉구했다.

김영근 부대변인은 이날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 이후 33년 동안 추모곡 이상으로 국민 속에 민중가요로 자리 잡아 왔다”면서 “이명박 정부 때 이 노래를 퇴출시키려고 한 적이 있다. 당시 정부는 대정부 투쟁을 고취시키는 것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5·18 구속부상자회 등 5월 관련단체들도 새로운 추모곡 제작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5·18 구속부상자회측은 29일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속부상자회측은 “국가보훈처 직원들과 간담회 과정에서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

다”면서 “지난 30년간 불러온 이 노래를 못 부르게 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 블로그와 트위터 등 SNS에서도 관련 글과 영상이 퍼날라지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우기에 나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아이엘피터’라는 블로그는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때만이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있다. 권력자들이 무고한 국민을 죽였던 역사를 숨기기 위해 노래까지 바꾸려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라는 글과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만들어진 배경, 분위기를 자세히 올렸다.

‘보헤미안’이라는 블로그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체할 노래를 국비를 들여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대표곡으로 지정하는 게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이라며 “또 국가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수 없도록 국민 스스로 강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재화 변호사(@johmylaw)는 트위터에 “보훈처는 장난치지 말라. 이 노래보다 더 어울리는 추모곡은 세상에 없다”는 글을 남겼고 P.P.F(@kateyoonn)씨는 “지킵시다. 이런 어수선한 시기에 노래마

저 지켜야하는 슬픈 현실입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은 을이다’는 트위터어(@2chanfather)은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랫말이 선동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영화 ‘레미제라블’ 가사는 극찬한다”면서 “역사적 이해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중 잣대의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조국(@patriamea) 교수는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가 듣기 거부하다고?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의 가사는 알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푸른나무(@ifkorea)

라는 트위터어안은 ‘무기를 들어라 시민들아! 시민군을 조직하라! 행진하라, 행진하라! 적의 더러운 피로 우리 눈발의 고랑을 적시자!’라는 프랑스 국가 가사를 올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바꾼다고 한다. 미친 짓이다”고 썼다.

천정배(@jb-1000) 변호사도 “박근혜 정부는 왜 또 이런 쓸데없는 짓을? 공안정부 아니라고 할까봐서?”라고 올렸다. 이 상호 go발뉴스 기자도 ‘임을 위한 행진곡’ 영상과 노래를 올리며 정부의 계획을 비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시의회,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기념곡 결의문 추진

광주시의회(의장 조호권)가 29일 열리는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함께 향후 공식 기념곡 지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 요구 시위현장 등 수십 년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언제나 울려 퍼졌던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노래인 만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순 및 공연 등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가 있음에도, 새로운 기념곡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과 정신계승의 참 의지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며 “새로운 기념곡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정회근 시의원 등 6명이 발의했으며,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국가보훈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순천만정원박람회 보러 왔습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27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관람하고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권 여사가 영접을 나온 조충훈 순천시장과 함께 박람회장을 걷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 제공>

순천만정원박람회 관람객 30만 돌파

개장 8일만... 권양숙 여사·문재인의원 등 방문 “성공 기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10월 20일까지)가 개장 8일 만에 관람객 30만명을 돌파했다. 또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람회장을 찾는 등 유명 인사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28일 순천만 국제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누적 관람객 3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일 개장 후 8일 만이다.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추세라면 오는 10월 20일까지 184일간 목표 관람객 400만명을 훨씬 넘어선 500만명이 박람회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명인사들의 방문도 잇따르고 있다. 권양숙 여사가 27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

람회를 관람하고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문재인 민주당의원 의원과 비서관을 동반한 권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박람회장에 도착해 호수정원, 실내정원, 어린이놀이동산, 식물공정 등을 둘러봤다.

또 이날 민주통합당 우윤근, 조동환, 홍영표, 전해철, 윤후덕, 노영민 의원 등 6명의 국회의원도 박람회를 찾았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삼성 에버랜드 조창현 부사장이 박람회장을 방문했고, 24일에는 김용원 광주고등법원장과 송기진 광주은행장, 이영철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박람회를 찾았다. 다음달 4일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박람회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오늘 2019세계수영대회 실시 준비된 도시 ‘광주’ 부각시킨다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국제수영연맹(FINA)실사단이 29일 광주를 방문한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김윤석 사무총장은 28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INA실사단의 실사 컨셉이 대회 수명시설과 준비상황 점검인 만큼 세계수영대회를 가장 잘 치러낼 ‘준비된 도시 광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실사단 프리젠테이션에서 3D영상을 활용한 경기장 설계와 예산, 마케팅, 숙박 등 대회 준비내용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 공장 견학 등을 통해 광주가 세계적 수준의 도시임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시는 특히 지역민의 유치 열기가 실사단

평가에 중요한 항목임에 따라 민·관이 협력해 실사단 맞이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 사무총장은 “150만 광주시민의 유치 열망이 실사단에 전달될 수 있도록 환영분위기 조성과 실사단 맞이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넬 마르쿠레스쿠(루마니아) FINA 사무총장을 비롯한 마케팅·미디어·시설전문가, 법률전문가, FINA 공식 마케팅사인 덴츠 관계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29~30일 광주를 방문, 수영장 등 수영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내달 1일 정중원 국무총리를 접견한 뒤 출국할 예정이다.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는 오는 7월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 총회에서 집행위원 22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회교육 모델 ‘장성아카데미’ 800회

기초차단체로는 처음으로 공직자 및 군민들을 상대로 개설된 교육프로그램인 장성아카데미가 내달 2일로 800회를 맞는다. 공직자나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의 이해가 미흡했던 1995년 시작된 강의는 어느새 사회교육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장성군은 28일 “주민과 공무원 등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매주 1회씩 실시하고 있는 장성아카데미가 벌써 800회를 맞았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9월15일 첫 강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18년여 동안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정·관계·학계·재계 저명인사들이 아카데미 강단에 섰다. 김창식 전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윤근기 중앙공무원교육원 원

장, 방승인 이흥렬, 최일구 앵커 등 각각의 분야에서 성과를 남긴 인사들이라면 어김없이 장성의 초청을 받았다.

800회를 맞이하는 내달 2일에는 이응태 퇴계학연구원 이사장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단에 선다.

장성군은 이 같은 성공을 발판으로 지난 2005년 명칭을 장성아카데미하우스로 한 도서관을 개관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장성아카데미 주요 강연을 묶어 강연집을 발간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500여 기업체와 200여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강의를 추진하는 등 지금도 전국 지자체와 기업체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카데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홍희기자 yongho@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62)952-5577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 개림동 ● 구.한미쇼핑 ● 동부소방서 ●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감각기능과 연관성이 있다. 눈의 과도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뻗어**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라 한다.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 한의원 www.indara.co.kr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대한한서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20106-중-9819호 [광고] 광주은행 6층(신세계백화점사거리) **광주점 062-368-5075**

현대인 누구나 겪고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와 해결법 | 스트레스와 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갈라지고 눈알이 아프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알이 부어진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옆구리가 결리거나 아프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